

귀한 그릇이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롬 11:24

오늘의 읽을 말씀

11/1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20-21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엡 2:1-5

1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2 그때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골 4:3

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으로 이루어진다. 디모데와 그 외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은 귀한 그릇들이 진리를 붙들어 주는 확실한 기초를 이룬다. 천한 그릇들은 타락한 인성(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며(비교 딤후 2:19,21), 내적인 신성한 본성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 장 21 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을 가리키며, 2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에 언급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모든 불의한 것들뿐 아니라 또한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불의한 것들과 천하게 쓰이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이다. '귀한'은 본성의 문제이고, '거룩해지고'는 위치의 문제이며, '쓸모있게 되며'는 기능의 문제이고, '예비될'은 훈련의 문제이다(디모데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 36-37 쪽)

나의 체험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 사람을 창조하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요구하실 의도가 조금도 없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을 창조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릇이 열리는 것이다. 그릇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지만, 그릇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매우 악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알기를 좋아하고 행하기를 좋아한다. ... 종교는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주고 또한 행하도록 도와준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너무나 활동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다. 신학교의 교육은 단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만을 돕는다. ... 이러한 교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적하는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계속 열어 드리기를 원하신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만 빈 그릇이지만, 당신께서 이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 질그릇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공흠을 베푸셔서 제가 당신께 항상 열려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자신이 그분께 열려 있지 않음을 자백해야 한다.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열려 있지 않다. ...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체험이 있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열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을 열었지만 언제나 약간 보류하는 것이 있었다. ... 우리는 자신이 주님께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적으로 열려 있지는 않다. 우리는 열려 있지만 단지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다. 우리는 피상적이고 얇은 방식으로 열려 있을 뿐이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살아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애먹이는 무언가를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은 감정이 가득하고 강한 의지와 생각을 지닌 살아 있는 단지이다. 타락한 후에 이 살아 있는 단지는 하나님께 골칫거리가 되었다. ...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너무 열정적이다. 어느 쪽이든 주님은 그릇을 얻으실 수 없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 장, 361-3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11/12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9:23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흠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행 6:7

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 행 14:22

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 고전 15:14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며,

#### 딤후 1:9

9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속된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를 치는 사람들과 자기 어머니를 치는 사람들과 살인하는 사람들과

#### 유 3, 20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바울의 열네 서신서를 요약하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열린 그릇’이다. 하나님은 열린 그릇을 원하신다. 로마서 9 장 23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흠의 그릇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 장 7 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두 절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체험하는 기본적인 비결로 간주할 수 있다. ... 우리 자신이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 길이 없다. ... 열린 그릇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채워지기 위해 자신을 열어 둘 뿐이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곧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 장, 364-36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자신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분께서 들어오시게 하라.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 이것은 타고난 생명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다. 합당한 상태라면 나는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항상 그분께 자신을 활짝 열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안에 완전히 계시된 것이다. ... 여러분이 이것을 열쇠로 삼아 다시 한번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본다면, 이것이 그의 서신서들에 담겨 있는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교훈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극도로 섬겨야 합니다. 저의 마음과 존재는 반드시 당신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말씀하심을 통해, 당신께서 제가 어떤 것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놀라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의 증거가 이곳에 나타난다. 그것은 다만 무엇을 담을 수 있을 뿐이며, 등잔대는 기름으로 거둬 채워지기 위해 자신을 열어 둘 수 있을 뿐이다. 입구가 닫히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등잔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등잔대는 다만 자신을 열어 기름을 받아들이고 빛을 비출 뿐이다. 등잔대는 그것을 채우는 기름을 받아들인 다음 무언가를 표현한다. 즉, 빛을 낸다. 사실상 등잔대는 기름을 담은 진정한 그릇이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5 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처녀는 다만 여분의 기름을 가진 그릇이다. 이 비유에서 그릇은 빛을 내고 타기 위해 기름을 담는다. 이것이 처녀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처녀는 무슨 일을 하는 데 분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름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열어 두는 사람이다. 그럴 때 기름은 그 안에서부터 타서 빛을 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항상 열어 놓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졸리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우리가 매우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 놓으라. 그분께 날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께 닫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전적으로 철저히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열어 놓으며,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시며, 이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누리며, 주님의 행하심을 누릴 뿐이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366-367, 369, 372, 3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장

## 11/13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딤후 2:22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 시 89:14

14 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자애와 진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 눅 18:8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 막 11:22

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 갈 3:26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요 3:15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에 관련되지만, 의는 하나님의 외적인 움직임과 길과 행동과 활동에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의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행동에서의 그분의 어떠하심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옳으시다. 정의와 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분의 의를 구성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움직임에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원칙을 가리킨다(비교 계 15:3). ...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그분의 일을 본 다음에야 그분을 찬양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분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의 통제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9, 12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믿는 이들이 믿는 내용을 가리키며,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엡 4:13, 딤후 1:19 하, 딤후 4:7). 두 번째 의미는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이다(갈 2:20).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이러한 믿음은 객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주관적인 행위, 곧 주 예수님을 믿는 행위이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되시려고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이다. ...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서(벧전 1:2 상)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다(행 16:31). ...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롬 10:17).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다.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께 매혹되었다. ...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제시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 즉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이 생기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상은 그분의 매력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무언가를 본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라.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많은 사람이 우주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인격에 매혹될 것이다. ...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본 후에 누가 그분을 믿지 않겠는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보는 것과 같으며,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복음이 합당하게 전파되는 동안, 그 영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전파와 함께하신다. ... 그러한 전파는 여러분 밖에서 그리스도를 말해 내는 것이지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즉시 그러한 전파와 함께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은 회개하며 이러한 분을 감상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곧 여러분의 믿는 행위이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생긴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 곧 그분의 매력에 대한 반응이다. 많은 젊은이가 구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박해하거나 극심하게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롬 10:9 하-10 상, 5:1).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왔다(롬 5:2).(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 (상), 7 장, 93-9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7-8

### 11/14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요일 4:8-10, 19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엡 2:14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 벧후 1:2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 빌 4:7, 9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9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

신성한 사랑은 ...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1 장 15 절에서처럼 ‘세상’은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일서 4 장 10 절은 더 나아가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사실 안에 더 높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속성인 신성한 사랑은 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나타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8, 10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2 장 4 절은 “공흠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한다.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흠의 대상은 항상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흠은 사랑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고, 심지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흠이 필요하다.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흠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보다 고귀한 그분의 사랑이 타락한 삶의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흠이라는 그분의 속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기도 하므로, 우리가 그분의 분배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된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더 분배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이 된다.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속성은 평안(또는 화평)이다. 신약은 하나님의 평안\*(빌 4:7)과 화평\*의 하나님(롬 16:20)을 모두 말한다. ...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되는 평안인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의 하나님은 하나이다. ...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 자신이다. 평안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에서 ...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화평이 온다.

우리의 체험에서 평안은 은혜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누리는 데서 나오는 상태이다. 하나님을 은혜로 누릴 때 우리는 안식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이 평안이다. ... 은혜의 실질은 하나님 자신이고, 평안의 상태는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산출된 상태이다. 우리 모두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얻는 평안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평안이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 1 장 2 절과 기타 서신서들에서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은혜로서 누리는 데서 나온다. 이러한 은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8, 108-109 쪽, 메시지 7, 102-103 쪽, 메시지 10, 145-1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9-10

11/15 **금요일**아침의 누림**행 2:21**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7:59**

59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창 4:26**

26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 12:8**

8 그는 그곳을 떠나 벧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벧엘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 13:4**

4 그곳은 아브람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 21:33**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 26:25**

25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천막을 쳤다.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신 4:7**

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처럼 가까이

계시는 신을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에서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 장 26 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욥(욥 12:4, 27:10), 아브라함(창 12:8, 13:4, 21:33), 이삭(창 26:25),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신 4:7), 삼손(삿 15:18, 16:28), 사무엘(삼상 12:18, 시 99:6), 다윗(삼하 22:4, 7), 시편 작가 아삽(시 80:18), 시편 작가 헤만(시 88:9), 엘리야(왕상 18:24), 이사야(사 12:4), 예레미야(애 3:55, 57)와 그 밖의 사람들(시 99:6)을 통해 지속되었고, 그들 모두가 구약 시대에 이것을 실행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당부했다(사 55:6).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은 1:6, 왕하 5:11). ...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명령이고(시 50:15, 렘 29:12) 그분의 갈망이다(시 91:15, 습 3:9, 속 13:9).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에서 기쁘게 물을 마시는 길이고(사 12:3-4),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즉 즐겁게 그분을 누리는 길이다(욥 27: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매일 그분을 불러야 한다(시 88:9). 요엘은 신약 희년에 관하여 그러한 기쁜 실행을 예언했다(올 2:32).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5-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 장 21 절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경륜적으로 부어 주신 것과 관련된다. ...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전 1:2).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의 주요 실행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한다(롬 10:10-13). 초기의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고(고전 1:2),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다(행 9:14, 21). 스데반은 박해당할 때에 이것을 실행했는데(행 7:59), 그의 실행은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사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다(행 7:58-60, 22:20). 그 후, 믿지 않던 사울은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의 표시로 삼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박해했다(행 9:14, 21). 사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직후에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 받고 사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 주라고 사울에게 당부했다. 디모데후서 2 장 22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말을 통하여, 초기에 주님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름 부르기를 실행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은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행하여 자기처럼 주님을 누리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강하게 부를수록, 그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도행전 7 장 59 절에 의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다소의 사울은 이

살인에 찬성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에 가담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따르면, 사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다마스쿠스에 가려는 그의 의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초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닌 표시였다는 것을 시사한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6-7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11/16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딤후 2:22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 마 5:8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엡 1:18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 엡 3:16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 롬 10:9-15

9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1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또 보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

교회가 황폐해진 시기에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길을 찾을 수 있다(딤후 2:22). 교회가 황폐해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여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만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 우리의 본성은 반드시 금과 은이어야 하고, 우리의 동기는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 ...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투명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동기가 혼탁해서는 안 된다. 투명한 동기는 순수하지만, 혼탁한 동기는 혼합되어 있고 불순하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빌 1:15).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열심도 있고 또한 상당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동기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교회의 세 방면, 2 권, 교회의 발자취, 6 장, 113-11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이 순수한 이들은 함께 서서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같은 교리적인 관점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리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분열을 낳을 뿐이다. 마음이 순수한 한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는 기꺼이 상대를 위해 순교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동역자와 동반자를 얻는다.

나는 어떤 형제가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 대략 이십 년 동안 그와 동역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함께 두셨기 때문이었다. 내가 느끼기에 그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했다. 나는 그가 교회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감정도 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함께 섬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었다.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에 자아에 속한 것이 전혀 없음을 함축한다.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근원으로 삼아 인간의 방법과 의견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동반자로 일으키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자아의 모든 활동을 멈추었는지의 여부에도 달려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총명함과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었는가?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가?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2 장 22 절에 따르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한다'.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부르는 것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에 있다. 외부에서 우리 몸에 더해진 어떤 것도 우리 몸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그러지 않는 이들과 결합될 수 없다. 이것은 종파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파주의라고 규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 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판결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합된 모든 것을 유죄판결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과 순수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일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 이 둘은 함께 엮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혼합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교회의 세 방면, 2 권, 교회의 발자취, 6 장, 117-119, 122-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의 세 방면, 2 권, 교회의 발자취, 6 장

### 아침의 수련

#### 요 20:19-23

19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20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23 여러분이 누구의 죄들을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롬 15:33

33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롬 16:26

26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빌 3:12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 고전 1:3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